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과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Discretionary Development Cost Impairment and Auditor Industry Expertise

박민경(주저자) · 김정은(교신저자)

Minkyung Park(First Author) · Jeongeun Kim(Corresponding Author)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시간강사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pm76464@gmail.com)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Doctoral Stud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reicoo@nate.com)

본 연구는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의 회계처리가 자산손상의 실질을 반영하는데 감사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비를 자산화 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전문 감사인은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손상차손 인식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감사인이 감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시장의 제재가 있던 2019년 이후 감사인의 경영자 통제 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 제재 발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의 제재 이후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에서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주식 공시가 있는 기업에서만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경영자 재량, 개발비 손상차손, 산업전문 감사인, 주식공시

The estimation of recoverable amount used for impairment loss is an accounting treatment that is highly likely to cause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the firm and its auditors. This study verifies the relevance between the auditor’s industry expertise and management’s discretionary recogn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firms that capitalized development costs from 2011 to 2021 are as follows. First, Industry-specialized audito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evance with discretionary impairment loss recogni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the auditor’s role was different. Third, it is the result of verifying the auditor’s ability to control management according to the market’s sanctions on development cost accounting. Only, in the KOSPI market, it was found that the auditor’s industry expertis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after market sanctions.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auditor’s industry expertise reduced management’s discretionary recognition in the KOSDAQ market where there is a disclosure on development cost impairment loss accounting trea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 of supervisory sanctions and auditor’s abilit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and the level of voluntary disclosure by firms.

Keyword: Managerial discretion, Development cost impairment, Industry specialist auditor, Note disclosure

1. 서론

2018년과 2022년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표준적인 회계 지침을 밝히고 2019년에는 ‘중점 점검 4대 회계 이슈’ 중 하나로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을 선정하였다.¹⁾ 본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의 회계처리가 자산손상의 실질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위원회 발표 및 여러 미디어를 통해 무형자산 중 특히,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지만, 그에 비해 개발비 인식 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2018년과 2019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테마 감리 이슈 중 하나는 개발비 감사 절차의 적정성이다. 감사인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감리 지적사항 중 하나를 살펴보면 기업의 주요 지적사항은 개발비 사용가치에 대한 비합리적인 가정으로 회수가능액을 과대 추정하여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였다는 것이다. 개발비의 규모가 계속 혹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향후 경영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비로 인식한 후 기대만큼 연구개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대규모 손상차손을 반영

해야 한다.

감사인에 대한 지적사항은 손상징후 검토 시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감사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수가능액을 검토함에 있어 매출성장률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감사인은 기업이 제시한 손상인식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손상인식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근거자료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이 제시한 손상차손 인식 여부 및 회수가능액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분석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감사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²⁾

다음은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³⁾

“..... H 사는 전기 3상의 실패를 완전한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400억여 원 자산을 무 자르듯 손상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회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지금까지는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후기임상을 자산으로 잡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임상을 중단한 게 아니니 모든 최종 결과를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하였다. 만약 H 사가 400억여 원을 전액 손상차손 처리하면 상반기 말 현재 121.8%인 부채비율이 170% 안팎으로 증가하고 상반기 42억 원이던 세전 손실은 400억 원대로 급증한다. 모든 판단은 감사인에 달렸다.”

실패한 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지만 기업은 후기 임상 성공을 자신하며 자산의 유

1) 연합뉴스, 2018. 12. 10.,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외부 자산평가·개발비 인식’ 중점점검’.

금융감독원, 2022. 09.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파미셀은 2015년에 개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적발돼 공시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받았다. 파미셀은 증선위로부터 증권 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더 벨, 2019.06.19, ‘파미셀, 실패한 개발비 손상차손 2년 지나 반영’)

3) 머니투데이, 2019.09.26., ‘헬릭스미스 임상3상 좌절에도 개발비 그대로 자산’.

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부감사를 통해 개발비의 자산성과 장부가액이 최종적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손상차손 인식 여부 및 회수가능액의 추정에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능력 즉, 감사인의 전문성이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적정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성의 감소 또는 시장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손상차손 인식을 결정하는 회계처리는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⁴⁾ 손상차손 인식금액 결정 시 사용가치를 추정하여 사용하는데⁵⁾ 이러한 과정에도 경영자의 자의적 선택 및 추정이 영향을 미친다(Duh et al., 2009; Vanza et al., 2011; Chao & Horng, 2013). 자산손상 회계처리의 목적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재무 보고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나 손상차손 인식 여부 및 인식금액이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결정된다면 회계정보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는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Biddle et al., 2009; 권수영과 기은세, 2011; 최승욱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 중 감사인의 능력으로 대리되는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자의적인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산업 전문감사인은 실무경

험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갖는다(Solomon et al., 1999).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전문감사인이 감사품질 및 위험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ow, 2004).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산업 전문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부정을 발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O'Keefe et al., 1994; Johnson et al., 1991; 양승희와 송보미, 2020). 특히,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시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 파악이 어려우므로 공정가치 대응치로 사용가치를 이용하여 파악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미래 사업 전망 및 시장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국외 연구에 비해 산업 전문 감사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들의 결과는 혼재된다. 이익조정 수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양승희와 송보미(2020)의 연구에서는 산업전문가 감사인이 감사한 피감기업들의 이익조정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산업전문성의 효과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고재민 외(2009)의 연구에서는 산업 전문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지만, 그 결과가 발생액 모형별로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산업 전문감사인이 경영자의 재량적인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방향의 가능성을

4) 기업들이 공시한 손상차손 인식 사유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분명하거나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시장의 변화(수요 저조 또는 고객 요구사항 변경 등)로 사업성이 저조한 건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동 개발자산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상기 손상 대상 자산은 향후 매출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손상 인식하였습니다.”

“개발된 제품의 판매 저조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프로젝트별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각 프로젝트 별 향후 잔존 내용연수 동안 추정하였습니다.”

5) 손상정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9).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이 사용되는데 거래 시장이 활발하지 않는 경우 사용가치가 주로 사용된다(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20).

두고 분석한다.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은 Chao & Horng(2013)이 제시한 방법인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산업전문 감사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 측정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비를 인식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전문감사인은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과로 이러한 결과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 산업전문 감사인은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인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효과를 금융감독원 제재가 시작된 2019년을 전후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 제재의 효과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주식 공시가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첫째,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업권을 통해 진행되어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 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고 관심이 계속하여 집중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외부 지배구조의 역할을 하는 감사인의 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둘째, 자산손상 회계처리는 공정가치 평가를 중시한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손

상차손은 회수가가능액 추정에 있어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 중 하나로 감사인의 능력이 손상차손 인식의 실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자산가액의 변동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동은 외부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의 능력 및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손상차손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하였다. 기업의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주식 공시가 충실하게 보고되는지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고하는 본 연구는 실무계, 규제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감사인의 능력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가설을 수립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표본 구성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 V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 수립

2.1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회계처리에 따르면 손상차손 인식의 징후는 외부정보 원

천과 내부정보 원천으로 나뉘는데 내부 창출을 통해 인식되는 개발비의 경우는 내부정보 원천으로 징후가 판단된다. 내부정보 원천에 대한 징후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자산의 유희화, 영업 중단 및 구조조정, 자산의 조기 처분, 그리고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선택되는데 무형자산의 경우,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용가치가 회수가능액을 대신한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측정할 현재가치로 현금흐름은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해 기업에 유입될 순현금흐름액과 내용연수 말에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할 순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⁶⁾

이렇듯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에서는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경영자의 재량권이 허용될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Riedl, 2004; Wines et al., 2007; Chao & Horng, 2013). 명시적인 지침의 부재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자의적 선택을 허용하며, 이러한 재량성으로 인해 경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손상차손을 이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손상차손 인식과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였다(Duh et al., 2009; Carlin & Finch, 2008; 박범진 2013).

Rees et al.(1996)은 손상차손 인식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음(-)의 값을 보이고, 손상차손 인식 전

이익이 동종업종의 중위수보다 작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경영진이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손상차손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정대현 외(2015)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빅베스 및 이익유연화 유인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손상차손 인식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영희와 지현미(2014)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 중 재무분석가가 존재하지 않은 기업의 주당손상차손금액이 주가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유형자산 외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같이 감정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공정가치가 평가될 경우는 재무분석가 존재 여부가 주가에 차별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지만,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큰 유형자산 외 손상차손의 경우는 재무분석가가 외부감사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혜리와 김정교(2018)은 소액주주 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및 외부대주주 지분율을 외부주주 지배구조 변수를 통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손상차손 인식과 재량적 유동 발생액의 동시적 이익관리를 완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현(2012)는 내부 회계공시 전문인력의 존재 여부와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내부회계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면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와 투명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손익계산서상의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의 손상차손의 합으로

6)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9, 12, 20.

계산한 손상차손 전체 금액을 사용하거나 영업권을 통해 살피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발비 손상차손에 집중하여 살펴봄에 경영자의 자의적인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역할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2.2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에 대한 연구

채무제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업 외부이해관계자는 감사인이다.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통해 채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공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외부감사 기능을 외부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채무제표 신뢰성의 '인증'이라고 표현한다(Watts & Zimmerman, 1986; Simunic & Stein, 1987 등).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외부정보 이용자 간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집중한다. 감사인의 특성은 업종 특유의 거래나 계약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다(Craswell et al., 1995; Owhoso et al., 2002). 이에 선행연구들에서는 감사인 능력의 대리변수로 산업전문성 여부를 선정하였다.

산업전문 감사인은 다수의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업종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갖는다(Solomon et al., 1999; Low, 2004). 이에 산업전문 감사인이 해당 산업 내에서 보다 차별화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asterella et al., 2004). 특정 산업에 대한 감사 경험이 많을수록 회계 부정을 적발할 능력이 높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지식으로 감사위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Johnson

et al., 1991; Low, 2004). 산업전문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이 비산업전문 감사인에 비해 우월하여(Dunn & Mayhew, 2004)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Reichelt & Wang, 2010; Payne, 2008). Krishnan(2003)와 Bae et al.(2016)은 산업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Carcello & Nagy(2004)는 산업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받을수록 감리 지적을 더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산업전문 감사인이 채무제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외국 선행연구들은 산업전문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비전문 감사인(nonspecialist auditors)이 감사한 기업보다 더 높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감사인의 능력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결과는 혼재되어 영향력을 단언하기 어렵다. 박석진과 김갑순(2015)은 조세회피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산업전문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사의 품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유진과 김정옥(2017)은 산업전문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일수록 고유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회계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양승희와 송보미(2020)는 전체 연구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산업 전문성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익조정 수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산업전문 감사인이 감사한 피감사기업들의 이익조정 성향이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종학과 양승희(2019)는 동질적인 성격의 산업에 소속된 피감사기업들을 감사하는 산업전문 감사인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줄

이나 시간당 감사보수가 상승하여 감사보수 총액은 동질적 성격의 산업이 아닌 경우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석우 외(2014)의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의 예상과 달리 산업전문 감사인이 감사한 피감사기업이 비산업전문 감사인이 감사한 피감사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 수준을 낮춘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감사인의 산업 내 전문성은 감사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오류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집중하여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따른 감사인의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인해 감사인 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3 가설 수립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등을 통해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 시 감사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은 주로 감정에 의하여 책정되지만, 유형자산 외(투자·무형·기타)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에는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박영희와 지현미, 2014).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시기 및 인식금액 결정에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영자 유인은 감사인에게 감사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경영자가 수행한 손상차손 평가 시 감사인이 해

당 자산에 대한 기업의 내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감사위험은 피감사기업의 고유위험(inherent risk)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Mun, 2017) 피감사기업의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경영자의 공격적 경영 성향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시장 상황과 영업실적에 따라 생산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창섭 외, 2012).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사유에 대해 공시한 기업들은 주로 '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수가능액으로 측정된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 해당 산업의 시장 추세, 과거 경험 등의 내·외부정보에 따라 산출된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DeGeorge et al.(2013)은 호주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평균 23% 상승하였는데 이는 파생상품 및 헷징(hedging) 회계, 영업권과 무형자산 및 이연법인세 등의 회계처리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감사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감사 투입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손혁 외(2019)는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감사인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개별 감사 항목 중 하나로 개발비의 자산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 특성에 따른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로 공정가치 평가와 같이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한 회계처리에서 산업전문 감사인이 경영자의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7) 감사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개별 감사 항목에 대해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 및 개발비의 자산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부채와 자본의 분류, 실질지배력 판단 및 연결범위의 산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수익 인식, 그리고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의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등이라고 답변하였다.

감사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될수록 감사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한 감사인의 노력 및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Bell et al., 2001; Chang et al., 2011).⁸⁾ 감사위험을 잘 판단하여 감사인의 감사가 효과적일 때 경영자들의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을 낮추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감사인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보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가적 판단과 추정이 필요하다(손혁 외, 2019). 산업전문 감사인은 동종 산업에 대한 반복적 감사 경험으로 축적된 산업에 대한 지식을 통해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부정을 적발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Johnson et al., 1991; Low, 2004). 또한, 산업전문 감사인은 특정 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감사인으로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sam et al., 2003; Payne, 2008; Reichelt & Wang, 2010).

산업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낮고, 감리 지적을 받을 위험이 낮다고 보고되었다(Krishnan, 2003; Carcello & Nagy, 2004). 따라서 감사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기업에 산업전문 감사인이 투입된다면 업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이해를 토대로 감사위험이 낮아지고 재무제표의 왜곡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나 감사 절차가 비슷할 것이므로(Gramling & Stone, 2011; Cairney & Young, 2006) 산

업 전문화가 된 감사인의 경우 피감사기업에서 습득한 지식을 동일한 산업의 다른 피감사기업에 적용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할 것이다.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의 주된 인식 사유는 미래 산업 전망 및 현금흐름 예측 등이다. 해당 산업에 대한 반복적 감사를 통해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자면 해당 산업의 미래 전망, 현금흐름 예측 등이 비전문 감사인 보다 용이할 것이고 경영자의 자의적 선택을 통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처럼 국내 연구에는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전문성이 재량적인 손상차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산업전문 감사인은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감사인의 전문성에 따라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의 재량성이 차별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량적 손상차손 인

8)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EY한영이 추진한 중요 과제 중 첫번째는 산업전문가 양성이다. EY한영은 건설,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등 감사 수행에 산업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교육 이수를 인증해주는 '산업별 교육 인증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야 좋은 품질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매일 경제, 2018. 한영, 회계사를 산업별 전문가로...감사 품질 확 높인다).

식액(DIMP)이고, 산업전문 감사인 여부(SPEC)를 관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감사인의 전문성 계수인 β_1 이 유의한 음(-)의 값 또는 양(+)의 값을 나타내면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을 하락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된다.

$$DIMP = \beta_0 + \beta_1SPEC + \sum Controls + \sum IND + \sum YD \quad \text{식 (1)}$$

- DIMP_{i,t} = t년도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
- SPEC_{i,t} = t년도 산업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받으면 1, 아니면 0
- BIG4_{i,t} = t년도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으면 1, 아니면 0
- SIZE_{i,t} = t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LEV_{i,t} = t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LIQ_{i,t} = t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CFO_{i,t} = t년도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 MTB_{i,t} = t년도 시가총액/자본총계
- FOR_{i,t} = t년도 외국인 지분율
- OWN_{i,t} = t년도 최대주주 지분율
- LOSS_{i,t} = t년도 당기손실보고 기업이면 1, 아니면 0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감사인 규모(BIG4),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유동비율(LIQ), 영업현금흐름(CFO), 성장률(MTB), 외국인 지분율(FOR), 최대주주 지분율(OWN), 당기 손실보고 여부(LOSS)를 통제하고 연도 더미($\sum YD$) 및 산업 더미($\sum ID$)를 추가하였다. 첫 번째로, 기업규모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기업규모(SIZE)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 크기에 따른 정치적 비용 가설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성에 대해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Watts & Zimmerman, 1986).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도 커져

부채계약위반 회피목적의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것으로 보고된다(Becker et al., 1998; DeFond & Jiambalvo, 1994). 따라서 부채비율(LEV)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안전성이 재량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유동비율(LIQ)을 모형에 포함하고(DeFond & Jiambalvo, 1994)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할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선행연구(신유진과 김정옥, 2017)를 토대로 감사인 규모(BIG4)를 통제하였다.

MTB(장부가치대 시장가치)가 높은 기업은 성장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Roychowdhury, 2006). 당기손실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Degeorge et al., 2013)를 토대로 LOSS를 추가하고 영업현금흐름(CFO)은 발생액과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시켰다(Subramanyam, 1996). 기업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외국인지분율(FOR)과 최대주주 지분율(OWN)을 추가하였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 감시 수준이 높아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최대주주의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박범진, 2013; 박종일과 박수근, 2007). 마지막으로 연도별 차이와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sum YD$)와 산업더미($\sum IND$)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3.2 변수 정의

3.2.1 재량적 손상차손 측정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해 Chao & Horng(2013)이 제시한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⁹⁾ 실제 발생액에서 비재량 발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재량적 발생액과 마찬가지로, 실제 손상차손에서 예상 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재량적 손상차손을 계산하기 때문에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진의 재량성을 측정함에 손상차손 인식액보다 더 적절한 변수라고 판단된다.¹⁰⁾ Chao & Horng(2013)이 제시한 변수 측정 모델은 다음 식 (2), (3)과 같다.

$$\begin{aligned}
 WO_{it} = & \beta_0 + \beta_1 RET_{it} + \beta_2 MB_{it} + \beta_3 \Delta ROA_{it} \\
 & + \beta_4 \Delta OCF_{it} + \beta_5 LOSS_{it} + \beta_6 INDRET_{it} \\
 & + \beta_7 INDMB_{it} + \beta_8 IND\Delta ROA_{it} \\
 & + \beta_9 SIZE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 (2)}$$

$$\begin{aligned}
 IMP_{it} = & \delta_0 + \delta_1 RET_{it} + \delta_2 MB_{it} + \delta_3 \Delta ROA_{it} \\
 & + \delta_4 \Delta OCF_{it} + \delta_5 INDRET_{it} + \delta_6 INDMB_{it} \\
 & + \delta_7 IND\Delta ROA_{it} + \delta_8 SIZE_{it} + \delta_9 MILL_{it} \\
 &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 (3)}$$

$$DIMP_{it} = IMP_{it} - EIMP_{it} \quad \text{식 (4)}$$

여기서,

- WO_{it} =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 IMP_{it} = 개발비 손상차손/ 평균총자산
- RET_{it} = 주식수익률[(t기 수정주가/ t-1기 수정주가 - 1)*100]
- MB_{it} = 기말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
- ΔROA_{it} = t-1기부터 t기까지 개발비 손상차손 인

- 식 전 이익의 변화/ 평균총자산
- ΔOCF_{it} = t-1기부터 t기까지 영업현금흐름의 변화/ 평균총자산
- LOSS_{it} = t기 손실 보고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 INDRET_{it} = I 기업이 속한 산업의 t기 주식수익률의 중위수
- INDMB_{it} = I 기업이 속한 산업의 t기말 시장 대 장부가치 비율의 중위수
- INDΔROA_{it} = t-1기부터 t기까지 I 기업이 속한 산업의 ROA 변화의 중위수
- SIZE_{i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MILL_{it} = Inverse Mills ratio

실제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액에는 해당 기업과 산업의 수익성, 주가변동율,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부분과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크거나 적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개발비를 자산화 한 기업이 모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 연구 시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손상금액을 측정치로 연구를 수행하면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경영자의 재량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최원욱과 조선애, 2021).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Inverse Mills ratio(MILL_{it})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2단계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개발비 손상

9) Heckman's two-stage selection model은 경영자가 손상차손 인식을 한 경우의 손상차손 금액만이 분석에 이용되는 자기 선택(self-selec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Choi & Cho, 2021).

10) Chao & Horng(2013)은 전체 자산에 대한 재량적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 수익성 등의 요인 등을 고려한 후 발생한 잔차를 재량성으로 추정하였다.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대해 공시한 기업들의 주식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성장 가능성 감소, 매출액 감소, 수익성 감소, 미래영업현금흐름의 감소 등을 꼽았다. 이에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진의 재량성을 추정한 Chao & Horng(2013)의 연구 모형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던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의 재량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여 식 (2)와 식 (3)을 통해 추정한다.

차손(EIMP_{it})을 추정 한 후, 실제 손상차손(IMP_{it})에서 추정된 기대 손상차손(EIMP_{it})을 차감하여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DIMP_{it})을 계산하였다.

3.2.2 산업전문 감사인 측정

산업전문 감사인 여부는 선행연구를 따라 피감사기업의 자산총액을 이용하여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Lim & Tan, 2010; Krishnan, 2003; Mayhew & Wilkins, 2003). 감사인의 산업별 시장점유율의 측정 모형은 아래 식 (5)와 같다.

$$MKSHR = \frac{\sum_{j=1}^{j_{i,k}} \sqrt{ASSETS_{i,j,k}}}{\sum_{i=1}^I \sum_{j=1}^{j_{i,k}} \sqrt{ASSETS_{i,j,k}}} \quad \text{식 (5)}$$

여기서, ASSETS은 피감사기업의 자산총액

식 (5)의 i, j, k는 각각 감사법인, 피감사기업, 피감사기업의 산업 구분을 의미하며, ik는 k 산업 내의 감사법인 수를, J_{ik}는 k 산업 내의 감사법인 i의 피감사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ASSET_{ijk}는 k 산업에 속하는 감사법인 i의 피감사기업 j의 자산총액을 나타낸다. MKSHR은 감사법인 i의 k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산업전문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피감사기업의 자산총계 기준 시장점유율이 1위인 산업전문 감사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산업전문 감사인(SPEC1)으로 설정하고 강건성을 위해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감사인을 산업전문 감사인(SPEC2)으로 추가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Mayhew & Wilkins, 2003; Bae et al., 2016; 송보미, 2018).

3.3 표본선정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연도인 2011년부터 2021년을 표본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장기업 중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기업 및 인식금액은 수작업으로 추출하고 산업전문 감사인 계산을 위한 재무자료 및 기타재무자료는 TS-2000 및 KIS-VALUE에서 수집하였다. 개발비를 인식한 기업을 표본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제약기준을 추가하였다.

-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상장법인
- (2) 12월 결산법인
- (3) 자본잠식기업이 아닐 것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과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잠식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 모형에 사용된 연속형 변수는 상, 하위 1%를 기준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최종 표본은 5,956개 기업-연도이다.

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최종 표본 중 본 연구의 관심 표본인 손상차손 인식기업의 연도별, 산업별 분포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개발비를 자산화한 전체 표본 중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은 2,108개로 35.4%의 기업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Table 1>의 패널 A는 연도별 분포인데 2016년과 2017년에 손상차손 인식기업의 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으로 2018년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지침을 제공하였고, 2019년에는 ‘중점 점검

〈Table 1〉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기업의 연도별, 산업별 분포

Panel A. 연도별 분포			
연도	손상차손 인식기업수	손상차손 인식비율 (/개발비 인식기업)	손상차손 인식액 (/개발비 인식액)
2011	109	0.217	0.068
2012	117	0.229	0.069
2013	146	0.286	0.167
2014	136	0.253	0.142
2015	136	0.244	0.102
2016	378	0.662	0.659
2017	361	0.637	0.632
2018	194	0.348	0.305
2019	191	0.329	0.251
2020	190	0.342	0.213
2021	150	0.296	0.227
전체	2,108	0.354	0.264

Panel B. 산업별 분포			
산업분류	손상차손 인식기업 수	손상차손 인식 비율	손상차손 인식액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4	0.443	0.3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6	0.398	0.35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7	0.380	0.283
출판업	204	0.421	0.28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5	0.515	0.3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3	0.360	0.181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112	0.323	0.3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2	0.300	0.230
연구개발, 정보, 교육, 예술 관련 서비스업	91	0.329	0.221
전기장비 제조업	91	0.320	0.204
전문서비스업	64	0.225	0.16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3	0.355	0.22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4	0.238	0.19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0.237	0.305
종합 건설업 및 전문직 공사업	17	0.266	0.378
식품제조업	14	0.203	0.107
방송, 통신,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	0.210	0.253
1차 금속 제조업	10	0.099	0.050
기타 산업	25	0.099	0.048
전체	2,108	0.354	0.264

4대 회계 이슈'로 선정하는 등의 제재를 밝혔다. 그 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손상차손 인식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패널 B에서는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474개(손상차손 인식기업 중 2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286개(13.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227개(10.7%) 순으로 나타났다.¹¹⁾ 산업별 분포를 통해 손상차손 인식이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비 인식액 대비 손상차손 인식액의 평균은 0.264로 개발비로 자산화한 후 26.4% 이상을 손상차손으로 비용 인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Table 2〉는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이다. Panel A는 본 연구의 전체 표본인 개발비를 인식한 기업의 기술통계이고, Panel B는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Panel A에서 Chao & Horng(2013)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DIMP)의 평균(중위수)은 0.004(-0.001)이고, Panel B에서 DIMP의 평균(중위수)은 0.015(0.003)로 손상차손

을 인식한 기업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액이 더 크다.

산업전문 감사인(SPEC1)의 평균은 0.180으로 표본의 18%가 산업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에게 감사받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Panel B)의 산업전문 감사인(SPEC1)의 평균은 0.180으로 개발비를 자산화 한 기업 및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 산업전문 감사인의 투입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감사인 규모인 BIG4의 평균은 개발비 인식 기업(Panel A)에서는 0.470, 손상차손 인식기업(Panel B)에서는 0.450의 값을 보인다.

Panel A의 SIZE는 기업의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된 변수로 평균값(중위수)이 25.914(25.551)로 측정되었다. LEV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당기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평균값(중위수)이 0.417(0.416)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인 FOR은 평균값(중위수)이 6.7%(2.4%)이고, 손실 보고 여부인 LOSS의 평균은 0.350으로 개발비를 자산화 한 기업 중 35%가 당기손실을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Panel B에 제시한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기업규모(SIZE) 평균(중위수)은 25.705(25.404)이고 LOSS의 평균은 0.430으로 전체 표본에 비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규모는 작고 재무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재량적 손상차손(DIMP)와 산업전문 감사인(SPEC1과 SPEC2), 감사인 규모(BIG4)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사

11)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들의 주식 공시 사유를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들이 매출 및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즉 매출화(매출부진) 등을 사유로 공시하고 있다. 제약업종의 경우 신약 판매에 대한 판매처 및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등에서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불특정한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변화 또는 고객 요구사항 변경 등 매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손상차손 인식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기술통계

Panel A. 개발비 자산화 한 기업					
Variable	Mean	Median	Std. Dev.	1%	99%
DIMP	0.004	-0.001	0.019	-0.010	0.109
SPEC1	0.180	0.000	0.386	0.000	1.000
SPEC2	0.210	0.000	0.406	0.000	1.000
BIG4	0.470	0.000	0.499	0.000	1.000
SIZE	25.914	25.551	1.566	23.491	31.018
LEV	0.417	0.416	0.210	0.041	0.933
LIQ	2.776	1.577	3.993	0.301	20.509
CFO	0.044	0.044	0.099	-0.248	0.330
MTB	2.179	1.501	2.137	0.310	13.052
FOR	0.067	0.024	0.103	0.000	0.505
OWN	0.261	0.234	0.138	0.045	0.678
LOSS	0.350	0.000	0.476	0.000	1.000
N	5,956				
Panel B.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한 기업					
Variable	Mean	Median	Std. Dev.	1%	99%
DIMP	0.015	0.003	0.030	-0.010	0.144
SPEC1	0.180	0.000	0.381	0.000	1.000
SPEC2	0.180	0.000	0.387	0.000	1.000
BIG4	0.450	0.000	0.497	0.000	1.000
SIZE	25.705	25.404	1.454	23.441	31.018
LEV	0.415	0.413	0.205	0.041	0.933
LIQ	2.890	1.596	4.488	0.290	27.018
CFO	0.038	0.038	0.105	-0.287	0.388
MTB	2.430	1.711	2.270	0.345	13.052
FOR	0.060	0.022	0.092	0.000	0.462
OWN	0.252	0.230	0.131	0.036	0.654
LOSS	0.430	0.000	0.495	0.000	1.000
N	2,108				

변수정의: DIMP=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 SPEC1=시장점유율이 1위인 산업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SPEC2=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산업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BIG4=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LIQ=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CFO=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MTB=시가총액/자본총계, FOR=외국인 지분율, OWN=최대주주 지분율, LOSS=당 기준손실 보고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Table 3〉 상관분석

	DIMP	SPEC1	SPEC2	BIG4	SIZE	LEV	LIQ	CFO	MTB	FOR	OWN
SPEC1	-0.051***										
SPEC2	-0.081***	0.729***									
BIG4	-0.095***	0.487***	0.530***								
SIZE	-0.191***	0.303***	0.402***	0.412***							
LEV	-0.051***	0.033***	0.057***	0.046***	0.221***						
LIQ	0.057***	-0.034***	-0.072***	-0.065***	-0.193***	-0.506***					
CFO	-0.050***	0.072***	0.069***	0.127***	0.144***	-0.155***	0.013				
MTB	0.052***	-0.080***	-0.126***	-0.130***	-0.200***	0.063***	0.096***	-0.112***			
FOR	-0.105***	0.218***	0.264***	0.274***	0.580***	-0.035***	-0.02	0.196***	0.006		
OWN	-0.047***	0.089***	0.095***	0.193***	0.193***	0.017	-0.012	0.119***	-0.122***	0.042***	
LOSS	0.069***	-0.043***	-0.067***	-0.109***	-0.184***	0.223***	-0.058***	-0.412***	0.138***	-0.174***	-0.140***

1) 변수정의: 〈Table 2〉 참조

2) *, **, *** 양측 검정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인의 규모가 크거나, 산업전문 감사인이 투입된 기업의 재량적인 손상차손 인식 경향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전문 감사인(SPEC1과 SPEC2) 과기업규모(SIZE) 및 감사인규모(BIG4)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또는 감사법인 규모가 클수록 산업전문 감사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기타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Table 3〉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상관관계로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4.2 전체 표본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표본을 대상으로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

(DIMP)을 종속변수로 하고 감사인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변수(SPEC1과 SPEC2)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적 손상차손(DIMP)에 대한 산업전문 감사인(SPEC1과 SPEC2)의 계수값(t-값)은 각각 0.027(2.256)와 0.022(1.940)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이는 산업전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일수록 경영자가 재량적인 손상차손 인식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로 개발비 손상차손이 과대계상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감사인 규모(BIG4)는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대해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다.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인의 특성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에서 감사인 규모는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와 관련한 이익의 질을 개선시키는

12) 이 중 산업전문 감사인(SPEC1과 SPEC2)과 감사인 규모(BIG4)의 상관계수 값은 각각 0.487과 0.530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감사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산업전문 감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Shin and Kim 2017; Yand and Song 2020 등) 유의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두 변수가 함께 쓰임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우려되어 VIF를 추정한 결과, VIF의 최대값은 2.386으로 본 연구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BIG4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실증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Table 4〉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

DIMP = a ₀ + a ₁ SPEC + control variables + ε _t				
Variables	SPEC1		SPEC2	
	Est.	t-stat.	Est.	t-stat.
intercept	0.051	8.960***	0.052	8.960***
SPEC	0.027	2.560**	0.022	1.940*
SIZE	-0.037	-2.770***	-0.034	-2.170**
BIG4	-0.157	-8.930***	-0.159	-8.910***
LEV	0.006	0.380	0.006	0.390
LIQ	0.013	0.620	0.013	0.630
CFO	-0.010	-0.690	-0.010	-0.660
MTB	-0.002	-0.090	-0.002	-0.100
FOR	-0.002	-0.110	-0.001	-0.090
OWN	0.005	0.450	0.005	0.480
LOSS	0.036	2.430**	0.036	2.440**
YR&ID dummy	included			
Adj .R ²	0.129		0.129	
F Value	23.690***		23.640***	
N	5,956			

1) 변수정의: 〈Table 2〉 참조

2) *, **, *** 양측 검정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것에 있어 효율적이지만, 감사인의 산업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이해는 부정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3 추가분석

4.3.1 연구개발 산업에 중점하여 측정 한 감사인의 전문성

본 절에서는 피감사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전문 감사인을 감사인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로 산업 전문성을 측정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이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피감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은 하원석과 박선영(2021)의 방법론을 따라 측정하였다. 피감사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전체 합계액 중에서 감사인이 감사한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비중이 커질수록 감사인이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큰 피감사기업을 감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 변수가 갖는 시계열적 속성을 통제하고자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의 십분위 순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하여 RD-SPEC1로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지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위인 경우인 더미변수를 RD-SPEC2로 측정하여 관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4〉

〈Table 5〉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이 재량적 개발비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

$$DIMP = a_0 + a_1RD-SPEC + \text{control variables} + \varepsilon_t$$

Variables	RD-SPEC1		RD-SPEC2	
	Est.	t-stat.	Est.	t-stat.
intercept	0.053	9.290***	0.052	9.060***
RD-SPEC	0.101	5.840***	0.051	4.410***
SIZE	-0.169	-9.570***	-0.161	-9.070***
BIG4	-0.095	-4.940***	-0.045	-3.100***
LEV	0.008	0.470	0.006	0.380
LIQ	0.012	0.620	0.013	0.620
CFO	-0.011	-0.740	-0.009	-0.610
MTB	-0.005	-0.280	-0.001	-0.050
FOR	-0.005	-0.320	-0.003	-0.200
OWN	0.008	0.770	0.006	0.620
LOSS	0.036	2.470**	0.036	2.470**
YR&ID dummy	included			
Adj .R ²	0.132		0.130	
F Value	24.340***		23.990***	
N	5,956			

- 1) RD-SPEC1= 감사인의 모든 피감사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액 총액과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율로 측정한 십분위수의 순위, RD-SPEC2= 감사인의 모든 피감사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액 총액과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율이 시장점유율 1위 여부인 더미변수, 기타 변수정의는 〈Table 2〉 참조
 2) *, **, *** 양측 검정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의 결과와 유사하게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 변수(RD-SPEC1와 RD-SPEC2)의 계수값이 각각 0.101과 0.051로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은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3.2 시장 특성에 따른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추가 분석한다.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은 기업의 규모 차이로 인해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와 같은 감사환경이 체계적으로 다르고(이창섭 외, 2012)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감사인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의 오른쪽에 제시한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전문 감사인(SPEC2)은 〈Table 4〉의 결과와 유사하게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코스피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Table 6〉의 왼쪽을 보면 산업전문 감사인 변수 SPEC2는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보인다. 분

〈Table 6〉 시장 구분 후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 검증 결과

DIMP = a ₀ + a ₁ SPEC + control variables + ε _t								
Variables	KOSPI				KOSDAQ			
	Est.	t-stat.	Est.	t-stat.	Est.	t-stat.	Est.	t-stat.
intercept	0.014	3.510***	0.014	3.460***	0.073	5.800***	0.074	5.800***
SPEC1	-0.002	-1.030			0.010	1.180		
SPEC2			-0.005	-1.781*			0.017	1.885*
SIZE	-0.122	-4.720***	-0.143	-4.690***	-0.111	-6.190***	-0.111	-6.190***
BIG4	0.006	1.610	0.005	1.351	-0.003	-2.210**	-0.003	-2.392**
LEV	-0.064	-1.211	-0.003	-0.810	0.013	0.630	0.013	1.256
LIQ	-0.039	-2.121**	-0.041	-1.970**	0.012	1.440	0.002	0.540
CFO	-0.136	-0.868	-0.001	-0.130	0.002	0.830	0.003	0.221
MTB	-0.001	-1.720*	-0.020	-1.580	-0.001	-1.071	-0.002	-1.470
FOR	0.007	0.430	0.007	0.046	-0.002	-0.630	-0.003	-0.750
OWN	-0.001	-1.778*	-0.003	-1.982**	0.010	1.360	0.010	1.580
LOSS	-0.027	-1.420	-0.031	-1.520	0.023	1.840*	0.014	1.870*
YR&ID dummy	included							
Adj. R ²	0.067		0.066		0.159		0.160	
F Value	4.240***		4.280***		21.250***		21.290***	
N	1,799				4,156			

1) 변수정의: 〈Table 2〉 참조

2) *, **, *** 양측 검정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석 결과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성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관심이 크고 소송 등의 위험이 많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성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더 큰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인의 역할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4.3.3 시장 제재 이후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연구개발비에 대한 표준적

인 회계 지침을 밝히고 주식 공시의 모범사례를 제공하며 '내부창출 개발비 인식 및 손상 평가의 적정성'을 2019년 중점 점검 이슈로 밝혔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지침 제공 등의 시장 제재가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당국의 우려와 제재 발표가 차이를 가져오는지 검증하고자 2019년 이후 연도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추가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의 제재 발표가 아무런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은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의 제재를 발표한 2019년 이후부터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

〈Table 7〉 시장 제재 이후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

$$DIMP = a_0 + a_1SPEC + a_2YR + a_3SPEC*YR + \text{control variables} + \varepsilon_t$$

Variables	KOSPI		KOSDAQ	
	Est.(t-stat.)	Est.(t-stat.)	Est.(t-stat.)	Est.(t-stat.)
intercept	0.013(5.331***)	0.016(5.287***)	0.074(5.621***)	0.073(5.563***)
SPEC1	0.003(1.107)		0.002(0.701)	
SPEC2		0.002(1.075)		0.003(0.730)
YR	-0.005(-1.334)	-0.003(-1.095)	-0.006(-7.241***)	-0.006(-8.741***)
SPEC1*YR	-0.015(-1.875*)		0.000(0.170)	
SPEC2*YR		-0.012(-2.310**)		0.000(0.006)
Cont.s	included			
YR&ID dummy	included			
Adj .R ²	0.057	0.073	0.039	0.039
F Value	4.560***	4.531***	6.460***	6.497***
N	1,799		4,156	

1) YR: 2019년 이후이면 1, 이전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그 외 변수 정의는 〈Table 2〉 참조
 2) *, **, *** 양측 검정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장 제재의 효과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발비 손상차손의 인식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를 통제할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3.4 주식 공시에 따른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의 허용이 많아 광범위한 인식, 측정기준들로 인해 주식 공시가 더욱 중요해졌다. 핵심 감사사항 중 자산손상 인식은 빈도 높게 보고되는 항목 중 하나로 손상차손의 인식은 당기 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이므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식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가치의 추정 시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손상인식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감사보고서 상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주식 공시 여부에 따라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고 주식공시의 모범사례 등을 밝혔다. 이러한 시장의 제재로 인해 주식 공시 여부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역할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주식 공시 여부의 결합변수를 설정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추가 분석하였다. 이때, 기업별로 주식 공시 수준은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액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주식공시 존재 여부로 공시 수준을 측정하였다.¹³⁾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의 왼쪽에 제시한 코스피 시장에서의 결과에서는 주

석 공시 여부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주식 공시가 있는 기업의 감사인 산업전문성(FN*SPEC)은

<Table 8> 주식 공시에 따른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DIMP = a_0 + a_1SPEC + a_2FN + a_3SPEC*FN + \text{control variables} + \varepsilon_t$$

Variables	KOSPI		KOSDAQ	
	Est. (t-stat.)	Est. (t-stat.)	Est. (t-stat.)	Est. (t-stat.)
intercept	0.056(5.261***)	0.054(5.230***)	0.173(5.561***)	0.171(4.962***)
SPEC1	-0.000(-0.487)	-0.000(-0.090)	0.003(0.790)	
SPEC2				0.003(0.961)
FN	0.000(0.360)	0.000(0.706)	0.004(2.219**)	0.004(2.261***)
SPEC1*FN	0.001(0.831)		-0.009(-1.999**)	
SPEC2*FN		-0.000(-0.900)		-0.007(-1.919**)
Cont.s	included			
YR&ID dummy	included			
Adj .R ²	0.199	0.197	0.141	0.139
F Value	4.312***	4.260***	6.081***	6.000***
N	160		371	

1) FN: 주식에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공시사항 있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그 외 변수 정의는 <Table 2> 참조
 2) *, **, *** 양측 검정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13)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주식 공시를 살펴보면 기업별 공시 수준에는 개발과제별로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상황을 나타내거나 손상 회수가능액 추정에 사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등 기업 별 차이가 있다.

<공시 사례 1>

“당기 말 현재 개발비 장부금액 및 손상차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분류	개발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당기(주1)	누계액	
개발비	OLED	157,643	207,410	621,085	사용가치
	LED	-	703,037	703,037	사용가치
	SSN	66,601	309,907	309,907	사용가치
합 계		224,244	1,220,354	1,634,029	

(주1)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분명하거나,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시장의 변화(수요 저조 또는 고객 요구사항 변경 등)로 사업성이 저조한 건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상기 개발비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이후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결과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한 건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공시 사례 2>

“개발비의 손상 검토를 위하여 수익접근법 중 다기간 초과이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기간 초과이익법은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중평균할인율 15.77%를 적용하여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1,996,334천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대해 계수값(t -값)이 각각 $-0.009(-1.999)$ 와 $-0.007(-1.91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값을 나타낸다.

주식 공시 모범사례 적용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이 되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범사례를 따라 공시를 한 기업이 많아 공시 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역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덜 받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공시에 따른 산업전문 감사인의 경영자 통제 역할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식 공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V. 결론

자산 손상차손 중 가장 빈도가 높게 인식된 항목은 무형자산 손상차손(박종찬과 이세중, 2020)으로 손상차손의 회수가능액 추정에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용가치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규제기관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비 손상차손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고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영자의 재량을 통제하는 등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으로 측정된 감사인의 능력이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비를 자산화 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인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산업전문 감사인은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

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손상차손 인식이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으로 산업 전문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구개발 전문성이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한 추가분석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었다. 또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시장의 제재가 있던 2019년 이후 감사인의 경영자 통제 능력을 검증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 제재 발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의 제재 이후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발비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한 주식 공시가 있는 기업에서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외부 지배구조의 역할을 하는 감사인의 전문성이 재무 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전문 감사인의 역할을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시장의

특성과 기업의 자발적 공시 수준에 따라 감독기관의 제재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손상인식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 공시가 필요하고 시장의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혁이 기업의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감독기관에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분석에 이용된 식(1)과 식(2)의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액 추정 모형을 통해 추정된 재량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락 변수 및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분석 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생략된 변수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민, 김상일, 이호영(2009), “감사품질의 대응치와 발생액의 질의 상관관계,” **회계학연구**, 제34권 2호, pp.1-43.
- (Goh J. M., S. I. KIM and H. Y. LEE(2009), “The association between proxies for audit quality and the quality of accruals,” *Korean Accounting Review*, 34(2), pp.1-43.)
- 권수영, 기은선(2011), “감사품질이 경영자 예측정보의 편의성 및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감사능력 대 감사노력,” **회계학연구**, 제36권 1호, pp.71-124.
- (Kwon S. Y. and E. S. Ki(2011),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the bias and accuracy of management forecasts: Audit competence vs. audit effort,” *Korean Accounting Review*, 36(1), pp.71-124.)
- 김상헌(2012),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손상차손의 인식유인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41호, pp.507-524.
- (Kim S. H.(2012), “The effect of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 and disclosure on recognition for asset impairment losses,”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1, pp.507-524.)
- 김혜리, 김정교(2018),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지배구조가 자산손상 인식의 재량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2호, pp.377-403.
- (Kim H. R. and J. K. Kim(2018), “The effect of stakeholder perspective corporate governance on the discretion of asset impairment recogni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1(2), pp.377-403.)
- 문태형(2017),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위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5권 2호, pp.143-165.
- (Mun T. H.(2017), “A study on the audit times for each position and the audit risk,”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5(2), pp.143-165.)
- 박범진(2013),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따른 이익조정 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제19권 1호, pp.73-101.
- (Park B. J.(2013),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caused by analysts earnings forecasts on audit fee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19(1), pp.73-101.)
- 박석진, 김갑순(2015),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6호, pp.295-331.
- (Park S. J. and K. S. Kim(2015), “Tax Avoidance, Firm Value a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6(6), pp.295-331.)
- 박영희, 지현미(2014), “재무분석가 존재에 따른 손상차손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5호,

- pp.67-81.
- (Park Y. H. and H. M. Ji(2014), "A study on the value relevance of impairment loss and existence of analysts,"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55, pp.67-81.)
- 박종일, 광수근(2007),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46호, pp.191-226.
- (Park J. I. and S. K. Kwak(2007), "Auditor changes and audit quality," *Accounting and Auditing Research*, 46, pp.191-226.)
- 박종찬, 이세중(2020), "자산손상차손의 분기별 분포," **회계학연구**, 제45권 1호, pp.147-171.
- (Park J. C. and S. J. Lee(2020), "Quarterly distribution of asset impairment losses," *Korean Accounting Review*, 45(1), pp.147-171.)
- 손혁, 오명진, 한종수, 박종성, 조성연(2019), "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회계저널**, 제28권 5호, pp.157-199.
- (Shawn H., M. J. Oh, J. S. Han, J. S. Park and S. Y. Cho(2019), "Effect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on auditing and the solution of difficulties in practice," *Korean Accounting Journal*, 28(5), pp.157-199.)
- 송보미(2018), "감사위원회 특성과 산업전문가 감사인의 상호작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6권 4호, pp.207-230.
- (Song B. M.(2018),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industry specialist auditor on audit 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6(4), pp.207-230.)
- 신유진, 김정옥(2017), "감사인의 특성이 기업의 고유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 규모와 산업전문성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6호, pp.81-116.
- (Shin Y. J. and J. O. Kim(2017), "The Effect of Auditor Characteristics on Idiosyncratic Volatility: Focused on Auditor Size and Industry Specialist Auditor," *Korean Accounting Review*, 42(6), pp.81-116.)
- 양승희, 송보미(2020),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45권 1호, pp.207-243.
- (Yang S. H. and B. M. Song(2020),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or industry expertise and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45(1), pp.207-243.)
- 이창섭, 최우석, 배성호(2012), "실제이익조정활동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경영학연구**, 제41권 4호, pp.57-787.
- (Lee C. S., W. S. Choi and S. H. Bae(2012), "The effect of managers'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y on audit hour and audit fee," *Korean Management Review*, 41(4), pp.757-787.)
- 장석진, 이명곤, 조한석(2011), "이익조정 변동성과 이익유연화 수준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54호, pp.241-271.
- (Chang S. J., M. G. Lee and H. S. Cho(2011), "The effect of volatility of earnings management and level of income smoothing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Accounting and Auditing Research*, 54, pp.241-271.)
- 정대현, 배성미, 김종대(2015), "K-IFRS 도입이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0권 3호, pp.299-337.
- (Jeong D. H., S. M. Bae and J. D. Kim(2015), "The effect of K-IFRS adoption on goodwill impair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40(3), pp.299-337.)
- 정석우, 박종일, 배성호(2014), "비정상 감사보수, 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 및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 **회계저널**, 제23권 2호, pp.143-190.
- (Jeong S. W., J. I. Park, and S. H. Bae(2014), "The associations among auditors' abnormal

- audit fees, industry expertise, and discretionary accruals," *Korean Accounting Journal*, 23(2), pp.143-190.)
- 최승욱, 이재은, 배길수(2014), "감사파트너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39권 6호, pp.101-138.
- (Choi S. U., J. E. Lee and G. S. Bae(2014), "Industry specialization at the engagement partner level and audit quality: some Korean evidence," *Korean Accounting Journal*, 39 (6), pp.101-138.)
- 최원욱, 조선애(2021), "Covid19이 분기 자산손상 보고에 대한 경영자 재량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6권 3호, pp.229-266.
- (Choi W. W. and S. A. Cho(2021), "The effect of Covid 19 on the discretionary asset impairments in the quarterly report," *Korean Accounting Review*, 46(3), pp.229-266.)
- 최종학, 양승희(2019), "동질적 성격의 산업에 속한 피감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감사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8권 1호, pp.63-99.
- (Choi J. H. and S. H. Yang(2019), "The effect of the auditor industry expertise on auditor behavior in homogenous industries," *Korean Accounting Journal*, 28(1), pp.63-99.)
- 하원석, 박선영(2021),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연구개발 투자-가격 민감도," **회계저널**, 제30권 6호, pp.107-140.
- (Ha W. S. and S. Y. Park(2021), "Auditor R&D Specialization and R&D Investment Sensitivity to Tobin's Q," *Korean Accounting Journal*, 30(6), pp.107-140.)
- Bae G. S., S. U. Choi, and J. H. Rho(2016), "Audit hours and the unit audit price of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Evidence from Korea,"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3(1), pp.314-340.
- Balsam, S., J. Krishnan, and J. Yang(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pp.71-97.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pp.4-24.
- Bell, T. B., W. R. Landsman, and D. A. Shackelfor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pp.35-43.
- Biddle, G., G. Hilary, and R. S. Verdi(2009), "How doe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relate to investment efficienc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2), pp.112-131.
- Cairney, T. and G. Young(2006), "Homogenous industry and auditor specialization: An indication of production economi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5 (1), pp.49-67.
- Carcello, J. V., and A. L. Nagy(2004), "Client size, auditor specialization and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Managerial Auditing Journal*, 19, pp.651-668.
- Carlin, T. M., and N. Finch(2008), "Goodwill impairment testing under IFRS: A false impossible shore?," *Pacific Accounting Review*, 23(3), pp.386-392.
- Casterella, J., J. Francis, B. Lewis, and P. Walker (2004),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client bargaining power, and audit pric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3(1), pp.123-140.
- Chao, C. L., and Horng, S. M.(2013), "Asset write-

- offs discretion and accruals management in Taiwan: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40, pp.41-74.
- Craswell, A., J. Francis, and S. Taylor(1995), "Auditor brand name reputations and industry specializ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3), pp.297-322.
- Defond, M. L. and Jiambalvo, J.(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January), pp.145-176.
- De George, E. T., Ferguson C. B., and N. A. Spear (2013), "How much does IFRS cost? IFRS adoption and audit fees," *The Accounting Review*, 88(2), pp.429-462.
- Duh, R. R., Lee, W. C., & Lin, C. C.(2009), "Reversing an impairment los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44 (June), pp.113-137.
- Dunn, K., and B. Mayhew.(2004),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lient disclosure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9(1), pp.35-58.
- Gramling, A. and D. Stone(2011), "Audit firm industry expertise: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archival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20, pp.1-29.
- Johnson, P. E., K. Jamal., and R. G. Berryman (1991), "Effects of framing on auditor decis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p.75-105.
- Lim, C., and Tan, H.(2010), "Does auditor tenure improve audit quality? Moderating effects of industry specialization and fee depen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7(3), pp.923-957.
- Low, K. Y.(2004), "The effects of industry specialization on audit risk assessments and audit-plann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9(1), pp.201-219.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pp.163-197.
- Krishnan, G.(2003), "Audit quality and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 pp.109-126.
- Mayhew, B., and M. Wilkins(2003),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Evidence from fees charged to firms going public,"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2), pp.33-52.
- O'Keefe, T. B., D. A. Simunic, and M. T. Stein (1994), "The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 (2), pp.241-261.
- Owhoso, V. E., Messier, W. F., and J. G. Lynch(2002), "Error detection by industry-specialized teams during sequential audit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3), pp.883-900.
- Payne, J.(2008), "The influence of audit firm specialization on analysts' forecast errors,"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7(2), pp. 109-136.
- Rees, L., Susan G. and Richard G.(1996), "An Investigation of Asset Write-Downs and Concurrent Abnormal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pp.157-169.
- Reichelt, K., and D. Wang(2010), "National and office-specific measures of auditor industry expertise and effects on audit quality,"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8(3), pp. 647-686.
- Riedl, E. I.(2004), "An examination of long-lived asset impairments," *Accounting Review*, 79 (3), pp.823-852.
- Roychowdhury, S.(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3), pp. 335-370.
- Simunic, D. and M. Stein.(1987), "Product differentiation in auditing: Auditor choice in the market for unseasoned new issues," Monograph prepared for the Canadian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Research Foundation.
- Solomon, I., M. Shields, and P. R. Whittington(1999), "What do industry-specialist auditors kno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1), pp. 191-208.
- Subramanyam, K. R.(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1-3), pp.249-281.
- Vanza, S., P. Wells, and A. Wright(2011), "Asset impairment and the disclosure of private information," Working paper(March) University Technology, Sydney.
- Watts, R. L.. and J. L. Zimmerman(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NJ).
- Wines, G., Dgwell, R., and Windsor, C.(2007), "Implications of the IFRS goodwill accounting treatment,"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2(9), pp.862-880.

-
- 저자 박민경은 현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전남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의 유용성, 주가급락 위험 등이다.
 - 저자 김정은은 전남대학교 회계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남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경영자 특성, 회계정보의 유용성, 주가급락 위험 등이다.